

힐만야구 숨은 힘은 '카멜레온 리더십'

트레이 힐만, SK를 구원할까?

일본 니혼햄 감독때 스포츠볼 변화로 우승 미국식 야구 버리고 희생타 늘리기 작전 계약기간 2년...KBO리그 적응이 열쇠

SK 와이번스는 2016시즌을 마친 후, 판을 갈아엎었다. 표면적으로 SK 김용희 감독, 민경삼 단장이 순차적으로 팀을 떠났다. 그러나 진짜 SK의 변혁의지는 프랜차이즈 코치들을 대거 떠나보낸 지점에 있다. 2013년부터 SK의 순위는 6위→5위→5위→6위였다. 2012시즌까지 이어온 6년 연속 한국시리즈(KS) 진출, KS 3회 우승의 영광은 색채가 바래져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엄중한 현실인식에서 SK는 혁신의 키(key)를 외부에서 찾았다. 미국인 트레이 힐만(54)을 감독으로 선택했다. 힐만의 야구관, 캐릭터에 따라 SK의 방향성이 규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 질문을 할 때다. 힐만은 어떤 감독인가? SK를 구원할 책임자가 맞는가?

●힐만은 2006년 니혼햄을 어떻게 우승시켰나?

사람의 행적은 그 사람의 말보다 견고한 진실을 말한다. 힐만의 선수경력에 마이니저 3년이 전부였다. 일찌니 은퇴한 뒤 지도자의 길을 걸었는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뉴욕 양키스 산하 마이니저 감독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다. 이어 텍사스 육성 디렉터로 일하다 일본프로야구 니혼햄의 감독 제의를 받은 것이 2003년이었다. 힐만은 2003시즌 퍼시픽리그 5위, 2004시즌 3위, 2005시즌 5위로 성적이 신통찮았다. 그런데 2006년 일약 니혼햄을 일본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 극적인 변화에 대해 저널리스트 타바타 이타루가 쓴 '프로야구 신(新) 승리의 방식'은 데이터에 근거한 해석을 제시한다.

책에 따르면, 힐만의 니혼햄은 2003시즌부터 3년 연속 희생타가 최소였다. 번트를 가장 안대는 팀이었다. 2005년 66개였던 보내기번트는 2006년 176개로 증가했다. 77개였던 도루는 111개로 늘었다. 24회였던 히트 앤드 런 작전은 38회 걸렸다. 주니치와 붙었던 일본시리즈에서 4승1패로 승리했는데, 이때 니혼햄이 성공한 번트총합은 스퀴즈를 포함해 무려 13개에 달했다.

그렇다면 힐만은 '성공한 스포츠볼 전향자'인 것인가? 이런 야구가 극단적 타고투저 트렌드가 지배하는 2017년 KBO리그에서, 그것도 가장 타자친화적인 홈구장(인천SK행복드림구장)을 사용하는 SK에 적합한 것인가? 의문에 도달한다.

그러나 핵심은 힐만의 스포츠볼이 아니라 유연한 적응력에 있다. 첫 3년의 실패를 통해 힐만은 자신의 야구관을 뿌리부터 바꿨다. SK가 의

국인감독의 태생적 리스크인 시행착오기간을 감수하면서까지 데려온 근거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2006년 니혼햄은 2017년 SK에서 가능한가?

힐만은 가장 어렵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바꿨다. 지위가 높을수록 변화는 어려운 일인데 해냈다. 이에 대해 힐만은 이렇게 말했다. "번트는 일본의 멘탈리티에 맞는 작전이라는 깨달음이 들었다. 번트를 대서 일단 1점을 내면 일본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싸운다."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알기 위해 힐만은 니토베 이나오의 명저 '무사도'를 읽었다. 야구문화 '도카벤'도 봤다.

니혼햄 선수들이 야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2006년 니혼햄은 선두타자 출루 시 득점성공률에서拔冠이었다. 1번타자 모리모토 히로시가 62.2%를 기록했는데, 이는 퍼시픽리그 전체 1위였다. 2번타자 다나가 켄이 57.6%로 전체 2위였다.

이밖에 2006년 니혼햄은 2점차 이내 성적(40승31패)이 리그 1위였다. 외야라인의 주자진루 저지율과 실점율에서도 리그 정상이었다. 한마디로 저실점에 능한 강력한 불펜야구, 수비야구를 실현했다. 이것이 니혼햄이라는 팀이 갖는 최적의 승리루트라고 판단한 결과다.

물론 당시 니혼햄은 다르빗슈 유(현 텍사스)라는 당대의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케다 히사시~마이클 나카무라가 주축인 불펜 방어율은 2.36이었다. 오가사와라~세기노~이나바가 버틴 클린업트리오도 강력했다. 그러나 힐만은 이런 호화멤버의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번트야구·지키는 야구·수비야구로 니혼햄의 이기는 패턴을 완성했다. 힐만은 '시대정신'에 맞춰 자신의 야구를 변형시킬 줄 아는 지도자로 볼 수 있다.

당시 니혼햄은 감독의 권한이 막강한 일본야구 풍토와 다르게 단장과 감독의 권력이 분할돼 있었다. 힐만은 일본프로야구의 명(名)단장으로 꼽히는 다카다 시게루 당시 니혼햄 단장과 권력 분점도 매끄러웠다. 프랜트와 분란이 심각했던 보비 밸런타인 전 지바롯데 감독과의 결정적 차이점이었다.

결국 힐만이 2017년 SK야구에 어떤 색깔을 입힐지 예단하기 어렵다. 2006년 니혼햄과 달리 SK는 다르빗슈와 같은 비중을 맡아줘야 할 에이스 강광현(29)이 팔꿈치 수술로 없다. 불펜진도 니혼햄 만큼 막강하다고 봐주기 힘들다. 무엇보다 SK 타자들은 번트, 도루 등 디테일 야구에 취약점을 드러내왔다. SK에서 힐만은 2년이라는 계약기간 안에 적응과 성적, 그리고 육성까지 안착시켜야 될 환경에 놓여있다. 힐만은 2006년 우승 직후, "신지라레나이(받을 수 없다)"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다. 믿기 힘든 기적이 11년 후 한국에서 다시 실현될까?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앞치락뒤치락 임병욱-박정음 넥센 중견수 전쟁은 계속된다

넓은 수비범위 장점...선외의 경쟁 모범사례

넓은 수비범위가 필수인 중견수는 외야 수비의 핵심이다. 타구판단 능력과 수비위치 조정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부담이 큰 포지션이다.

2016시즌 넥센의 중견수는 임병욱(22)과 박정음(28)이 번갈아 맡았다. 임병욱은 시즌 시작부터 주전 중견수로 낙점됐고,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던 박정음은 임병욱이 부상으로 빠진 사이 그 자리를 꿰찼다. 박정음이 발가락 골절상을 당해 시즌 아웃된 뒤에는 임병욱이 공수 양면에서 자기 몫을 해내며 '건강한 경쟁'의 모범사례를 보여줬다. 이들 2명이 올해도 유력한 주전 중견수 후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이유다. 빠른 발을 앞세운 넓은 수비범위는 둘의 공통된 장점이다.

임병욱은 2016 정규시즌 104경기에서 타율 0.249, 8홈런, 24타점, 17도루의 성적을 거뒀다. 유격수 출신으로 초반 외야수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경험을 통해 안정을 찾았다. 중견수로 638.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빠른 발을 앞세워 호수비도 여러 차례 선보였고, "수비에선 완벽하게 올라섰다"는 코칭스태프의 평가를 받아냈다. 시즌이 끝난 뒤에는 23세 이하(U-23)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국제경쟁력도 키웠다. 임병욱은 "처음에는 공 보고 공 잡기를 했다"며 "강병식 코치님과 많이 대화하며 방법을 찾았다. '네가 발이 빠르니 좀 더 시야를 넓히고 흐름을 읽으면서 야구하는 법도 배우자'는 이택근 선배님의 조언도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박정음은 지난해 98경기에 출장해 타율 0.309, 4홈런, 26타점, 16도루를 기록했다. 빠른 발과 정확한 타격은 박정음이 가진 최고의 무기다. 시범경기 때 평범한 타구를 놓치는 등 애를 먹었지만, 어려운 타구를 하나둘씩 잡아내며 자신감을 얻었다. 임병욱이 부상과 부진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중견수로 315이닝을 소화하며 충분한 성공체면을 했다. 2016시즌 막판 발가락 골절상을 당해 재활 중인데, 1월30일 미국 애리조나 스포팅 캠프 출국 전까지 완벽하게 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2017시즌에도 둘의 건강한 경쟁은 계속된다. 임병욱은 "(박)정음이 행이 잘하는 것을 보면서 위축되고 조금만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깨달았다. 정음이 형은 스타일이 확실하다. 내가 잘하면 좋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안영명, 올해 한화 부활의 키

5시즌 동안 한화도중 유일 두자릿수 V 재할과정 마무리...개인훈련 위해 광행



안영명

최근 5시즌(2012~2016시즌) 동안 한화의 국내투수 중 두 자릿수 승리를 따낸 이는 안영명(34)이 유일하다. 2015시즌 10승을 거두며 한화 마운드의 핵으로 자리매김했다. 공익근무 요원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2014시즌엔 48경기에 등판해 7승6패4세이브6홀드, 방어율 4.52를 기록하며 '안정진 트리오(안영명~박정진~윤규진)'의 선봉에 섰고, 이듬해 10승 선발투수로 자리매김하며 한껏 가치를 높였다. 2015시즌을 통해 투심패스트볼과 커브를 확실한 구종으로 추가한 터라 2016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2016시즌은 악몽의 연속이었다. FA(프리 에이전트) 자격 획득도 앞둔 터라 남다른 각오로 시즌을 준비했지만, 2경기에만 등판(1패, 2.2이닝 6자책점)한 뒤 자취를 감췄다.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7월19일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아 시즌을 마쳤다. 어깨 옷자란 뼈를 깎아내는 수술과 관절경 클리닉이었다. 안영명의 부재는 결국 한화 마운드, 특히 선발진의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해 한화의 선발투수 방어율은 6.38(587이닝 416자책점)로 골짜기였다. 안영명의 부활 여부에 올 시즌 한화 마운드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지금까지 과정은 순조롭다. 수술 후 착실히 재활을 소화한 덕분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캠프에 참가했고, 재활 과정은 모두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캐치볼도 문제없이 소화하는 단계까지 왔다. 4일에는 개인훈련을 위해 광모에 떠났다. 최고의 몸 상태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26일까지 현지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한화 구단관계자는 "안영명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워낙 성실한 선수라 기대가 크다"고 했다. 강산 기자



트레이 힐만은 SK를 개조할까? 일본프로야구 니혼햄에서 힐만은 첫 3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2006년 현지 스타일대로 적용된 야구로 우승을 이끌었다. 그런 학습능력이 지금 SK에 절실한 가치다. 스포츠동아DB

트레이 힐만

▲생년월일=1963년 1월 4일 ▲출생지=미국 텍사스 ▲선수 경력=클리블랜드 마이니저(1985~1987) ▲포지션=우투우타 외야수 ▲지도자 주요 경력=일본 프로야구 니혼햄 감독(2003~2007)~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 감독(2008~2010)~LA 다저스 벤치코치(2011~2013)~휴스턴 벤치코치(2014~2016)~SK 와이번스 감독(2017~)

총체적 위기 삼성, 김한수호 순항할까

차우찬·최형우 이적·외인 영입 미지근 최충연·나성용 등 유망주들 활약 절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2017시즌 삼성에 잘 어울리는 말이다.

삼성엔 지난 시즌 9위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뒤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통합 4년 패라는 대업을 이룬 류종일 감독 대신 김한수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코칭스태프도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스토브리그 전례 변화도 있었다. 투타의 핵심이던 차우찬(30-LG), 최형우(35-KIA)를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서 놓치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유규민(32)과 이원석(31)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했지만 여전히 불음표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삼성의 2017시즌 전망은 썩 좋지 못하다. 이승엽(41) 박한이(38) 등 고장들이 중심을 잡고는 있지만 공백이 많다. 당장 이지영(31)의 뒤를 받쳐줄 백업 포수가 없다. 삼성의 운명을 좌우할 외국인 선수 3명 중 1명(앤서니 레나도) 밖에 영입하지 못했다.

세대교체는 필연적이다. 빈 자리를 메울

젊은 선수들의 약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투수 쪽에서는 정인욱부터 차우찬의 보상선수로 이동한 이승현, 아직 유망주에 머물러 있는 신예 이수민과 최충연 등이 한 단계 올라 서야한다. 야수 쪽에서도 구자욱(24)이 지금처럼 꾸준한 활약을 펼쳐야 하고, 만년 유망주인 나성용(29)이 거포로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배영섭(31)이 다시 위력을 되찾으면 테이블세터에 대한 고민도 덜 수 있다. 이 외에도 백상원(29) 성의준(28) 황선도(20) 등 젊은 재목들이 성장해줘야 한다.

물론 앞선 조건이 이뤄진다고 해도 객관적인 전력은 두산 NC 등 강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젊은 선수들은 계산이 서는 전력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변을 했는지 팀의 10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 첫 발을 때는 2017년이 매우 중요하다. 삼성은 그동안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대교체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오히려 지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된다. 김한수호는 과연 삼성이 처해있는 총체적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삼성엔 2016시즌이 끝나고 대대적인 개혁을 감행했다. 전력 공백이 많아 총체적 위기라는 평가가 많지만 여차피 겪어야 할 시행착오다. 김한수 신임감독(맨 앞)은 과연 이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낼 수 있을까?